

물봉선 (학명 : *Impatiens textori*, 봉선화과)



물봉선의 군락, 산골짜기 냇가 등지의 습지에 자생하는 일년초다.

물봉선은 우리나라 전국의 산야지와 산골짜기 냇가 등지의 습지에 자생하는 1년초다. 집 주변에 심어 손톱에 물을 들이는 봉선화(鳳仙花, *Impatiens balsaminai*)는 인도, 말레이시아 및 중국 원산이다. 속명 *Impatiens*는 참을성이 없다는 뜻인데, 열매가 익으면 봉선(縫線)을 따라 터지며 종자가 멀리 튀어 나가는 현상을 따라 붙인 이름이다.

현철이 부른 '봉선화 연정'이라는 가요의 가사에 '만지면 툭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가요에서는 성숙한 여인을 묘사 하였지만, 잘 익은 봉선화 열매도 만지면 툭하고 터진다. 자기의 자손을 조금이라도 멀리 보내 자손들끼리 생존경쟁을 피하게 하자는 진화의 결과일 것이다.

물봉선은 높이 60cm 안팎이고, 털이 없고 부드러운 원줄기는 곧게 자라고 육질에 가깝다. 육질에 가까운 것은 습지에 살아서 수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디는 튀어나오고 줄기와 엽병의 색은 자줏빛이다. 잎은 호생하고 넓은 피침형이며, 양끝이 좁고, 길이 6-15cm 너비 3-7cm이며 가장자리에 예리한 톱니가 있고, 화서의 잎은 엽병이 거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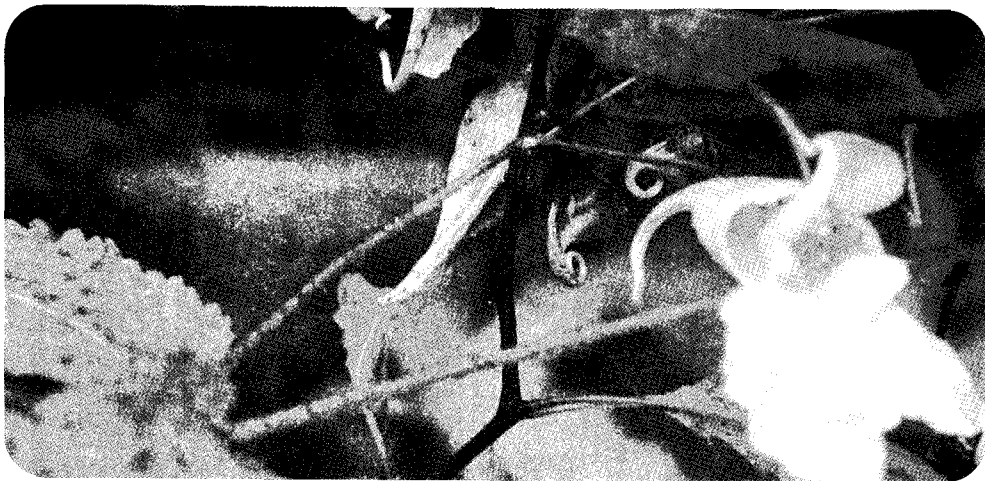
8-9월에 홍자색 꽃이 피며, 총상화서는 가지 윗부분에 달리고 소화경은 화서축과 더불어 밑으로 굽는다. 꽃은 양쪽에 있으며, 큰 꽃잎은 길이 3cm 정도이며 자주색 반점이 있고, 끝이 안으로 말린다. 수술은 5개로 꽃밥이 서로 합쳐지며 암술은 한개다. 9월에 열매가 성숙되는데 피침형으로 길이가 1-2cm된다.

흑자색 꽃이 피는 가야물봉선(for. *atrosanguinea*), 백색꽃이 피는 흰물봉선(for.



물봉선은 큰 꽃잎이 아랫쪽에 있어 꽃을 찾아오는 손님(꿀벌 등 곤충)이 편하게 앉을 수 있게 되어 있다.

pallescens), 높은 산에 나고 꽃은 백색이나 크기가 훨씬 작은 산물봉선(*I. furcillata*) 등도 있다. 가을에 야외에 나가면 물봉선의 군락이 흔히 눈에 띄고 꿀벌들의 웅웅거리는 소리도 들린다. **양봉**



노랑물봉선 꽃으로 뿔처럼 길게 붙은 것이 거(鋸)라고 한다.